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매립 특혜의혹

인천호수공원 대체 보트장 부적합 ... 인천공장 옆 우수지 매립 강행

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의 인천공장 폐석회 처리 문제와 관련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폐석회 매립 추진을 허용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11월30일 인천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2003년 남구, 시민대표, 동양제철화학 4자간에 합의한 폐석회 처리 조건 중 하나인 대체 보트장 설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매립 준비 강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허식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남구는 동양제철화학이 인천공장에서 40년간 소다회를 만들면서 나온 부산물인 막대한 양의 폐석회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2월 동양제철화학과의 폐석회 처리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장 부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석회를 동양제철화학이 소유한 인천공장 옆 우수지에 매립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수지의 원래 기능인 보트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 조사 결과 동양화학 인천공장에 쌓인 폐석회는 지상 480만^m, 지하 184만^m에 이른다.

그러나 대체 보트장 예정지로 검토됐던 아암도 지역이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진행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자 시는 인천대공원 내 호수공원을 대체 보트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우수지에 대해 남구청으로부터 2005년 12월 허가를 받아 매립시설 설치공사 면적 35만^m 중 절반인 17만^m에 대해 공사를 거의 끝내고, 12월부터 매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허식 의원은 “인천대공원 호수는 면적이 3만3000^m에 불과하고 카누, 조정, 요트 등 청소년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등 합의사항을 감안할 때 대체 보트장으로 부적합하다”면서 “매립을 강행하는 것은 시가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는 대체 보트장 시설계획이 없는 지금 동양제철화학의 매립지 조성공사를 중단시키고, 동양제철화학이 인천공장 부지에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검토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양제철화학은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인천공장 터와 주변 부지 155만7000^m에 상업·주거·의료·여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시는 사업을 놓고 환경부 등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는 오랫동안 인천의 도시경관을 저해해 왔다”면서 “특히, 폐석회가 쌓인 곳은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통해 제2, 제3경인고속도로로 연결될 예정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더 이상 흉물스런 적치물로 남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이른시일 내에 지상에 있는 폐석회를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며 지하의 폐석회는 앞으로 시민 위원회와 함께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있는 사항이므로 한점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03>